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있어서의 성차 그리고 병리적 증상과의 관계\*

문 성 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정신병리적 증상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성차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남녀고등학생 657 명에게 MSPUIA의 증상척도와 이용행태 질문지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속 시간과 접속 빈도, 접속 동기와 주요 인터넷 이용 영역을 질문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 행태가 증상의 강도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방학이 되면 더욱 심해졌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걸쳐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다. 주요 접속 동기는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 '심심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접속 영역에 관해 여학생은 음악감상과 영화감상을 포함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게임을 포함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 접속 시간과 성별은 병리적 증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병리적 증상의 정도가 심했고, 접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병리적 증상의 정도가 심해졌으며,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증상은 접속 시간의 증가에 따른 병리적 증상의 증가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접속 영역까지 포함해서 인터넷 이용 행태와 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접속 시간과 음란물 접속, 채팅 접속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정보검색과 접속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병리적, 증상, 인터넷, 청소년, 이용 행태, 동기, 시간, 영역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B20169)

† 교신저자: 문성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E-mail: drswmoon@hanmail.net

우리는 주머니속의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심지어는 고속철과 같은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3세에서 만5세 사이의 유아들 중 절반이상이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99%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이용이 병리적인 증상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매해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엄청난 양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의 병리적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의 이용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는 일인데,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등장 초기의 인터넷 문화나 인터넷 환경등에 의거해서 현실을 다루려고 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65.9%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 탐구쪽에만 치우쳐있었다. 인터넷 중독의 실태(17.3%),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개입방안(12.9%), 인터넷 중독의 과정(1.5%),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1.3%),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 분류(1.1%)가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을 보면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라고 하여도 단순히 중독 비율, 남녀 비교, 연령별 비교 중심의 간단한 실태를 다루거나, 혹은 여러 심리적 변인들과 중

독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을 뿐이었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인터넷 중독 실태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 파악,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또한 부족하였다.

또한,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의 다수는 이 문제가 개입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입 관련 함의와 무관하게 개인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상식적인 변인 중 몇몇을 단편적으로 택하여 증상이 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해당 변인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도만을 기술해내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취약한 개인은 건강한 개인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취약한 개인들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식적인 연구 결론들은 개입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 만일,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변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선행 연구에서 증상과의 상관관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선택되기보다는 해당 변인이 개입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택되어야만 하며, 다른 여러 유관 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충동성을 매개로 한 후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 성별,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친구지지가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로 설정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모형을 검증한 조영란과 이화자(2004)의 연구는 비교적 실제적 함의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여러 경로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경로는 성별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지지, 외로움,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순이었다. 성별은 인터넷 비행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해냈으며(김은정, 2005), 게임중독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냈다(이성식, 전신현, 2006). Jacks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조영란과 이화자(2004)의 결론과 유사했다. Jackson 등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는 성격특성이나 인지적 양식보다 인구학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인터넷 접속을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입각해서 보자면 병리적 인터넷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의사소통자의 특성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채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인터넷은 분명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자와 채널과 메시지의 요소가 모두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병리적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측면을 모두 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 및 그와 관련한 인터넷 이용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전신현, 이성식, 2006)은 말할 것도 없고, 접속 시간이나 빈도, 시간대 등에서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 그리

고 동시성과 비동시성, 상호작용성이 모두 가능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김교헌, 최훈석, 2008), 인터넷에 접속만 되어 있으면, 이메일을 쓰면서 메신저로 친구와 얘기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등 동시에 여러 활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메신저 도중 음란물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정보검색이 불법적 커뮤니티 접속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는 등 어느 한 영역에 대한 접속이 다른 영역에 대한 접속으로 곧바로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자료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만큼 설명이나 예측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충분한 기술적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일은 시각의 전환이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된 집단의 특성을 기술해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휴대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통해 인터넷이 점점 더 생활 속에 밀착될수록 인터넷에 대한 노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노출의 증가는 인터넷 비행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김은정, 2005), 결국 어떤 기준점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점수의 총량 및 병리적 증상의 하위 척도가 갖는 구분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이해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바로 그 시점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실제로 어떠한 행동 양태를 보이는지를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내고, 그러한 행동 양태가 병리적 증상

차원들에서의 변화와도 관련되지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속 시간, 접속 빈도, 접속 시간대, 접속 동기, 주요 접속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이용 행태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한 이용 행태가 증상의 심도와도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본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 MSPIUA) 전체가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동시에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부 증상척도(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및 2부 원인척도(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2003년에 이루어졌다.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국의 실험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설문지의 업로드 사실을 알리면,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각 학교의 재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설문에 응하였다. 학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응답자 학년 제한을 두었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각 학교의 2학년 학생들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의 실시는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

름하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습관 개선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총 819명이었으며 이들중 중학생은 162명이었고 고등학생은 657명이었다. 중학생 응답자수와 고등학생 응답자수간의 차이( $\chi^2=299.176, p<.001$ )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자료중 고등학생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등학생 응답자들은 서울에서 226명(23.1%), 대구 152명(23.1%), 충북 132명(20.1%), 경기 57명(8.7%), 강원 57명(8.7%), 경북 33명(5.0%)이 참여하였으며 성별 문항에 표시를 한 응답자중 남학생은 346명(52.7%), 여학생은 275명(41.9%)였다.

### 연구도구

####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3부 이용 행태 질문지(MSPIUA-U)

MSPIUA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증상을 묻는 1부 척도, 이용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있는 2부 척도에 이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터넷 접속시의 실제 이용 행태(Usage Pattern:U)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접속 시간, 접속 빈도, 접속 시간대, 인터넷 사용 역사, 인터넷을 처음 접한 시기, 가장 오랫동안 접속한 기록, 주로 이용 영역, 동반자 여부, 접속 이유 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학기중 사용과 방학 동안의 사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시기를 나누어서 질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답지중 하나의 답안을 고르도록 되어있으나, 접속 시간대를 묻는 질문과 사용 영역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답지 선택이 가능하였으며, 사용 동기

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중이 큰 3개의 답을 순서대로 고르도록 되어 있다.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문항은 주관식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이 질문들을 MSPIUA의 3부, MSPIUA-U라고 칭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1부 증상척도(MSPIUA-S)**

MSPIUA-S(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구체적 증상을 알아보는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 실패, 과몰입적 접속, 음란물 몰입, 신체건강상의 문제, 자기 통제력 상실, 대인관계손상,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 도피, 인터넷에의 강박적 몰입 등의 9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점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점에, 그리고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점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통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MSPIUA 1부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 = .94$  이었고, 각 소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학업적 실패의 경우  $a = .79$ , 과몰입적 접속  $a = .82$ , 음란물 몰입  $a = .78$ , 신체건강상의 문제  $a = .72$ , 자기통제력 상실  $a = .79$ , 대인관계손상  $a = .76$ ,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a = .59$ , 현실도피  $a = .64$ , 인터넷에의 강박적 몰입  $a = .83$  이었다.

**분석 방법**

먼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MSPIUA 3부의 응답 내용중 접속 시간, 접속 빈도, 접속 시간대, 접속 동기, 접

속 영역에 대해 성별에 따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이용 행태 변인을 선택한 후 이들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상 총점 및 각 증상 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6.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결 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 기술적 분석**

**일일 인터넷 접속 시간**

일일 인터넷 접속 시간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접속량별 응답 빈도를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표 1에 나타나있듯이 전체적으로 접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학생 응답자가 여학생 응답자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많아졌으며, 학기중보다는 방학 기간의 인터넷 접속량이 많았다. 학기중에는 3시간을 그리고 방학기에는 7시간으로 기점으로 하여 각 기점을 넘게 되면 여학생의 응답보다는 남학생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경향이 있었다.

**주당 인터넷 접속 빈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당 인터넷 접속 빈도에 대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매일 접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매일 접속한다고 보고한 학생중에는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많았으며, 삼일에 한번 접속한다고 보고한 학생중에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일일 인터넷 접속 시간

	학기중(%)			방학기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30분 이내	34( <b>13.2</b> )	28(8.2)	$\chi^2=.58$	8( <b>3.1</b> )	10(2.9)	$\chi^2=.22$
1시간이내	52( <b>20.2</b> )	54(15.9)	$\chi^2=.04$	17( <b>6.6</b> )	11(3.2)	$\chi^2=1.29$
2시간이내	77( <b>30.0</b> )	86(25.3)	$\chi^2=.50$	36( <b>14.0</b> )	30(8.8)	$\chi^2=.55$
3시간이내	51( <b>19.8</b> )	65(19.1)	$\chi^2=1.69$	46( <b>17.9</b> )	49(14.4)	$\chi^2=.10$
4시간이내	22(8.6)	36( <b>10.6</b> )	$\chi^2=3.38^+$	43( <b>16.7</b> )	49(14.4)	$\chi^2=.39$
5시간이내	13(5.1)	26( <b>7.6</b> )	$\chi^2=4.33^*$	39( <b>15.2</b> )	49(14.4)	$\chi^2=1.14$
6시간이내	2(8)	16( <b>4.7</b> )	$\chi^2=10.89^{***}$	25(9.7)	33(9.7)	$\chi^2=1.10$
7시간이내	4(1.6)	10( <b>2.9</b> )	$\chi^2=2.57$	17(6.6)	26( <b>7.6</b> )	$\chi^2=1.88$
8시간이내	2(8)	8( <b>2.4</b> )	$\chi^2=3.60^+$	9(3.5)	21( <b>6.2</b> )	$\chi^2=4.80^*$
8시간이상	0(0)	11( <b>3.2</b> )		17(6.6)	62( <b>18.2</b> )	$\chi^2=19.28^{***}$
Total	257	340		257	340	

주.  $^+p<.10$ ,  $^*p<.05$ ,  $^{**}p<.01$ ,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주당 인터넷 접속 빈도

	학기중(%)			방학기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매일	106(41.2)	209(61.5)	$\chi^2=33.68^{***}$	191(74.3)	294(86.5)	$\chi^2=21.87^{***}$
이틀에 한번	73(28.4)	78(22.9)	$\chi^2=.17$	36(14.0)	31(9.1)	$\chi^2=.37$
삼일에 한번	46(17.9)	30(8.8)	$\chi^2=3.37^+$	13(5.1)	5(1.5)	$\chi^2=3.56^+$
일주일에 한번	31(12.1)	21(6.2)	$\chi^2=1.923$	14(5.4)	8(2.4)	$\chi^2=1.64$
학기(방학)중 한번	1(4)	2(6)	$\chi^2=.333$	3(1.2)	2(6)	$\chi^2=.20$
Total	257	340		257	340	

주.  $^+p<.10$ ,  $^*p<.05$ ,  $^{**}p<.01$ ,  $^{***}p<.001$

### 인터넷 접속 시간대

접속 시간대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며 접속 시간대를 질문한 결과, 학기중의 경우 표 3에 나와있듯이 응답자 수로 비교하면

방과후 바로와 밤12시 이후 새벽시간, 그리고 수시로 잠을 내서 접속한다고 한 경우 남학생 접속자 수가 여학생 접속자 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았으나, 방학기간의 경우는 표 4에 나와있는 것처럼 늦은 밤만 여학생 접속자가

표 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 시간대: 학기중

	여학생(%)	남학생(%)	
등교하기 전 이른 아침	8(3.1)	13(3.8)	$\chi^2=1.19$
방과 후 바로	51(19.8)	152(44.7)	$\chi^2=50.25^{***}$
저녁 식사 후	100(38.9)	119(35.0)	$\chi^2=1.65$
늦은 밤	80(31.1)	88(25.9)	$\chi^2=.38$
밤 12시 이후 새벽 시간	18(7.0)	43(12.6)	$\chi^2=10.25^{***}$
수시로 잠을 내서	52(20.2)	81(23.8)	$\chi^2=6.32^*$
장소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15(5.8)	11(3.2)	$\chi^2=.62$

주.  $^+p<.10$ ,  $^*p<.05$ ,  $^{**}p<.01$ ,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 시간대: 방학기간

	여학생(%)	남학생(%)	
이른 아침	8(3.1)	49(14.4)	$\chi^2=29.49^{***}$
오전8시-낮12시	25(9.7)	86(25.3)	$\chi^2=33.52^{***}$
점심식사 이후(낮12시-오후5시)	87(33.9)	119(35.0)	$\chi^2=4.97^*$
저녁식사 이후(오후5시-9시)	67(26.1)	113(33.2)	$\chi^2=11.76^{**}$
늦은 밤(9시-밤12시)	82(31.9)	103(30.3)	$\chi^2=2.38$
밤12시이후	28(10.9)	60(17.6)	$\chi^2=11.64^{**}$
수시로 잠을 내서	67(26.1)	111(32.6)	$\chi^2=10.88^{**}$
장소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5(1.9)	13(3.8)	$\chi^2=3.56^+$

주.  $^+p<.10$ ,  $^*p<.05$ ,  $^{**}p<.01$ ,  $^{***}p<.001$

남학생 접속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전 시간대에 걸쳐서 대체로 남학생 접속자가 여학생 접속자보다 더 많았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이유**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비중이 큰 순서대로 3개의 답을 고르도록 하였으므로 먼저 각 순위의 응답에 대해 접속 이유에 대한 빈도를 구하였고 다음으로 3개

순위별 응답 내용을 합하여 각 이유별 빈도의 총합을 구하였다. 표 5에 나와있듯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여학생(80.9%)과 남학생(74.4%) 모두 ‘심심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세 번째 이

표 5.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이유들에 대한 순위별 반응 빈도

접속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심심해서	208 (80.9)	253 (74.4)	0 (.00)	1 (.3)	0 (.0)	0 (.0)
스트레스 해소위해서	4 (1.6)	27 (7.9)	34 (13.2)	98 (28.8)	0 (.0)	0 (.0)
친구들 대화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10 (3.9)	8 (2.4)	24 (9.3)	31 (9.1)	7 (2.7)	31 (9.1)
성취감 때문에	0 (.00)	4 (1.2)	0 (.00)	10 (2.9)	0 (.00)	6 (1.8)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재밌어서	3 (1.2)	6 (1.8)	13 (5.3)	13 (3.8)	3 (1.2)	13 (3.8)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서	0 (.00)	3 (.9)	8 (3.1)	11 (3.2)	4 (1.6)	17 (5.0)
원래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0 (.0)	0 (.0)	0 (.0)	0 (.0)	0 (.0)	0 (.0)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1 (.4)	2 (.6)	3 (1.2)	4 (1.2)	3 (1.2)	4 (1.2)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1 (.4)	1 (.3)	5 (1.9)	2 (.6)	4 (1.6)	2 (.6)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6 (2.3)	5 (1.5)	13 (5.1)	20 (5.9)	8 (3.1)	10 (2.9)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0 (.0)	2 (.6)	2 (.8)	9 (2.6)	2 (.8)	9 (2.6)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	5 (1.9)	4 (1.2)	35 (13.6)	44 (12.9)	14 (5.4)	24 (7.1)
적어도 인터넷에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3 (1.2)	9 (2.6)	25 (9.7)	15 (4.4)	16 (6.2)	20 (5.9)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어서	0 (.0)	0 (.0)	0 (.0)	6 (1.8)	1 (.4)	4 (1.2)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	9 (3.5)	4 (1.2)	42 (16.3)	18 (5.3)	41 (16.0)	39 (11.5)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서	5 (1.9)	3 (.9)	14 (5.4)	14 (4.1)	42 (16.3)	40 (11.8)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니까	0 (.0)	1 (.3)	9 (3.5)	3 (.9)	47 (18.3)	41 (12.1)
기타	0 (.0)	0 (.0)	0 (.0)	0 (.0)	4 (1.6)	7 (2.1)
무응답	2 (.8)	5 (1.5)	1 (.4)	2 (.6)	7 (2.7)	12 (3.5)



표 6.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 이유별 총 응답자 빈도

접속 이유	여학생(%)	남학생(%)
심심해서	208(80.9)	254(74.7)
스트레스 해소위해서	38(14.8)	125(48.6)
친구들 대화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41(16.0)	70(27.2)
성취감 때문에	0(0)	20(7.8)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재밌어서	19(7.4)	32(12.5)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서	12(4.7)	31(12.1)
원래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0(0)	0(0)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7(2.7)	10(3.9)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10(3.9)	5(2.0)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27(10.5)	35(13.6)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4(1.6)	20(7.8)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	54(21.0)	72(28.0)
적어도 인터넷에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44(17.1)	44(17.1)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어서	1(0.4)	10(3.9)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	92(35.8)	61(23.7)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서	61(23.7)	57(22.2)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니까	56(21.8)	45(17.5)
기타	4(1.6)	7(2.7)
무응답	10(3.9)	19(7.4)

유에 대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까’를 고른 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3개 순위별 응답 내용을 합한 결과에서는 당연히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심심해서’가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이유부터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반응 양상이 달랐다.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가 두 번째,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두 번

째였다. 세 번째는 여학생의 경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남학생의 경우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였다.

이에 비해, 접속 이유중 ‘원래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 대해 3가지 순위 모두에 대해 한명도 없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성취감 때문에’도 없었다. 1순위 접속 이유중 여학생의 경우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어서’,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1% 미만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선택하였으며, 2순위 접속 이유중 ‘심심해서’,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어서’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 응답자중 1% 미만이 선택을 하였고, 3순위 접속 이유중 ‘심심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중 1% 미만이 선택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1순위 응답중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서’,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어서’,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서’,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니까’, 2순위 응답에 대해서 ‘심심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까’, 3순위 응답에 대해서는 ‘심심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가 1% 미만의 응답을 했다.

#### 인터넷 접속 시의 주된 이용 영역

순위없이 복수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 학생중 597명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77.0%에 해당하는 459명의 학생이 주요 접속 영역을 복수로 선택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21.9%에 해당하는 131명은 단일 영역을 주요 접속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한 가지 영역을 주된 접속 영역으로 선택한 청소년부터 전 영역을 주된 접속

영역으로 학생에 이르기까지 접속 영역에 대한 반응 양상은 총 126가지였다. 한 영역만을 주요 접속 영역으로 선택한 학생은, 메일 11명, 메신저 30명, 채팅 1명, 게임 60명, 정보검색 5명, 동호회 11명,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 13명이었으며, 전체 반응 양상126가지중 10% 이상의 청소년들이 보인 양상은 게임을 주된 접속 영역으로 선택한 경우였다. 전체 응답자의 60명(10.1%)가 게임만을 주된 접속 영역이라고 보고하였고, 다른 응답자들은 다양한 접속 영역을 보고하였다. 접속 영역과 관련된 반응 양상은 성별에 따라 매우 달랐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전체 반응 양상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경우는 메신저를 단일한 주요 접속 영역이라고 선택한 경우였다. 전체 여학생중 22명(8.6%)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접속시 게임만을 한다고 답한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남학생중 54명(15.9%)의 학생들이 게임만 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표 7은 단일 선택이든 복수 선택이든 관계없이 해당 영역을 주요 접속 영역이라고 선택한 학생의 빈도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주된 접속 영역에 대해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을 포함한 학생들이 전체 여학생중 6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메일(61.1%), 메신저(54.9%), 동호회(49.4%), 게임(46.7%), 정보검색(35.4%), 집안일(1.2%), 음란물(1.2%) 순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주된 접속 영역에 대해 게임을 꼽은 학생들이 전체 남학생중 7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메신저(55.0),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54.4%), 메일(45.3%), 동호회(31.5%), 채팅(14.7%), 집안일(5.0%) 순이었다.

게임, 음란물, 집안일의 경우는 남학생들에

표 7. 성별에 따른 인터넷 접속시의 이용 영역별 응답 빈도

이용 영역	여학생(%)	남학생(%)	
메일	157(61.1)	154(45.3)	$\chi^2=.03$
메신저	154(54.9)	187(55.0)	$\chi^2=3.19^+$
채팅	38(14.8)	50(14.7)	$\chi^2=1.64$
게임	120(46.7)	271(79.7)	$\chi^2=58.32^{***}$
정보검색	91(35.4)	129(37.9)	$\chi^2=6.56$
음란물	3(1.2)	45(13.2)	$\chi^2=36.75^{***}$
동호회	127(49.4)	107(31.5)	$\chi^2=1.71$
음악감상및 영화감상	174(67.7)	185(54.4)	$\chi^2=.34$
집안일	3(1.2)	17(5.0)	$\chi^2=9.80^{**}$

주.  $^+p<.10$ ,  $^*p<.05$ ,  $^{**}p<.01$ ,  $^{***}p<.001$

의한 선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메신저의 경우는 남학생의 선택 정도가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증상간의 관계

이용 행태와 증상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용 행태에 포함시킬 변인을 선택하였다. 접속 시간, 접속 동기, 접속 영역중, 접속 동기의 경우 여학생중 80.9%, 남학생중 74.7%가 '심심해서'를 주요 접속 동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접속 동기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차적으로 접속 동기는 이용 행태와 관련된 독립변인군에서 배제하였다. 두 번째로, 접속 시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관련하여 일일 접속 시간과 주당 접속 빈도를 모두 질문하였는데, 연구에 따라 일일 접속시간과 주당 접속 빈도를 곱해서 전체 접속 시간을 산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김은정, 2005), 두가지 측정치 모두 주관적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주관적 보고에 의해서 얻은 두 수치를 곱하게 되는 경우 시간 변인의 효과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될 수 있고, 주당 접속 빈도의 경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시간과 증상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일 접속시간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접속 영역의 경우 77.0%의 응답자가 복수의 영역을 인터넷 접속시 사용하고 있었고, 특정 영역에만 단일하게 접속한다는 반응에서부터 전 영역에 모두 접속한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총 126가지의 반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속 영역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해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주요 접속 영역을 포함시킨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사용 영역 모두를 성별과 접속 시간, 각각의 사용영역 전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상 차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총 증상 평균에 대해 접속 시간

표 8. 증상에 대한 성별과 접속 시간의 회귀분석

	성별		시간		성별*시간	
	$\beta$	$t$	$\beta$	$t$	$\beta$	$t$
1. 학업실패	.06	.85	.36	4.82***	-.05	-.44
2. 내성/과몰입적 접속	.01	.13	.34	4.31***	-.23	-2.20*
3. 음란물 몰입	.32	4.56***	.06	.74	-.02	-.20
4. 신체건강상의 문제	-.11	-1.55	.32	4.11***	-.06	-.54
5. 자기통제력 상실	.29	4.08***	.18	2.24*	-.18	-1.71
6. 대인관계 손상	.23	3.26**	.26	3.37**	-.07	-.68
7.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23	3.13**	.32	4.16**	-.22	-2.13*
8. 현실도피적 지향성	.25	3.44**	.23	2.91**	-.17	-1.58
9.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21	2.89**	.36	4.62***	-.21	2.03*
증상 평균	.21	3.00**	.38	4.96***	-.19	-1.84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beta = .37, t = 9.36, p < .001$ ), 음란물접속( $\beta = .17, t = 4.78, p < .001$ ), 채팅접속( $\beta = .07, t = 2.11, p < .05$ )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정보검색이용과 접속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beta = -.12, t = -2.99, p < .001$ )가 유의미하였다.

성별과 접속 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상차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물 몰입 증상을 제외한 모든 증상 차원에서 접속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미했고, 학업 실패, 내성/과몰입적 접속, 신체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증상 차원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접속 시간의 증가는 대부분의 증상 차원에서 증상의 심화로 연결되었으며, 전체 증상 평균 혹은 구체적으로 음란물 몰입, 자기통제력 상실, 대인관계손상,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도피적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에 있어서 남학생

의 증상이 여학생의 증상보다 더욱 심했다.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에 대해서는 성별과 접속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성별에 따라서 접속 시간이 증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달랐다. 즉, 긴 시간을 접속할 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증상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

## 논 의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이용 행태가 병리적 증상과도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이 접속 시간 및 접속 동기와 접속 영역과

관련해서 성별에 따라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용 행태의 이러한 특징적 모습이 병리적 증상의 정도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냈다.

연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인터넷 접속 시간에 관한 부분이었다. 남학생들의 하루 인터넷 접속 시간이 여학생의 하루 인터넷 접속 시간보다 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이현주, 2006), 이 연구에서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길었고, 매일 접속한다고 보고한 비율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전체 접속량이 많은 만큼 남학생들은 하루의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 드러난 점은 접속 시간과 관련해서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기준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학기중의 경우 3시간, 그리고 방학기간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점 이상의 접속량에 대해서는 남학생 응답자가 더 많았다. 접속량에 남녀 성차를 가르는 기준점이 있다는 점은 성차가 인터넷 중독에서 더욱 비중있게 그리고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조영란과 이화자(2004), Jackson 등(2003)의 연구를 모두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을 다루기 위한 변인 선택의 방향이 앞으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해내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중독에서의 성차를 발생시키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오히려 개입과 관련하여 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여학생과

게임을 많이 하는 남학생간에는 심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서 볼 수 있듯이(이현주, 2006),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성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접속 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성차이외에도 방학 기간이 되면 학기중보다 접속시간이 더 증가되고, 접속 시간대별 이용율도 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가 시간의 증가는 곧바로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입증해냈다. 이현자(2004)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서 시간 관리가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시도를 했지만, 휴대용 무선 인터넷이 더욱 보급될 앞으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한 시간관리 교육으로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여가시간을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접속시간에서의 뚜렷한 성차를 확인한 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접속량에서의 이러한 성차가 접속 동기나 접속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접속 동기의 경우 가장 주요한 접속 동기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크지도 않았고, 청소년들은 여러 접속 동기중 한가지 동기에만 집중된 응답을 하여서, 여학생중 80.9%, 남학생의 74.7%가 다른 여러 이유중 '심심해서'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큰 의미나 목적없이 그냥말로 심심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가시간의 증가가 인터넷 접속량의 증가로 이어진 접속 시간 관련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심심해서’가 주된 접속 동기라는 결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보는 입장과는 상치되며(이성식, 전신현, 2006), Turkle(1995)이 말하는 복수의 정체성 추구가 인터넷 접속의 동기라는 입장과도 맞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의 동기를 개인적 동기, 도피적 동기,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김혜원(2001)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단연코 개인적 동기가 압도적이다. 과거의 연구들이 인터넷 접속의 주요 동기로 꼽았던 ‘성취감 추구’ 혹은 ‘새로운 정체성 추구’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특히 ‘새로운 정체성 추구’를 접속 동기로 꼽은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휴대용 무선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터넷은 그저 생활의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인터넷 초창기의 접속 동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인터넷 환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속에 확실한 자리를 잡았으며 상업적 분야에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왔다. 어린 아이들 마저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든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인터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용자에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상업적 환경에 의해 희생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일차적 동기이외의 동기에서는 남녀간의 성차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

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를 택하고 남학생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를 택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의 주된 동기는 남녀 모두 공통되더라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실용적인 문제 해결 동기가 더 강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 동기가 더 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차적 접속 동기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접속 영역에 대한 반응에서 보다 더 명확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전체 여학생중 67.7%가 인터넷 접속시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남학생들의 경우는 전체의 79.7%가 인터넷 접속시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복수의 영역을 주요 접속 영역으로 선택하고 있는 정도도, 여학생의 경우는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 메일, 메신저에 이르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게임을 주요 영역이라고 답한 정도가 다른 영역에 대한 반응 정도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이차적 접속 동기에서의 성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이성식과 전신현(2006)의 연구에서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은 동기였고, 채팅중독에서는 재미가 가장 높은 동기였으며,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은 동기였다는 점과도 상당히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접속동기와 접속영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여학생들의 주요 접속 영역은 현실 공간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현실 공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 가깝다면, 남학생들의 주요 접속 영역인 게임은 현실 공간과 유리되어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요 접속 영역과 관련된 여학생들의

총반응중 인터넷 접속시 오직 메신저에만 접속한다고 보고한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관계적 교환의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양상들이 병리적 증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는데, 접속 시간과 접속 영역 그리고 성별과 총 증상 평균과의 관계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총 증상 평균에 대해 접속 시간의 주효과와 음란물 접속과 채팅 접속으로 인한 접속 영역의 주효과 그리고 접속시간과 정보검색 이용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접속 시간이 길수록, 음란물 접속을 할수록 그리고 채팅에 접속할수록 전체 증상은 증가하며, 정보검색을 주요 접속 영역에 포함시킨 경우 접속 시간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지 않은 경우는 정보검색의 이용이 오히려 낮은 정도의 증상으로 연결됨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니터로 여러 영역에 동시에 접속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동시다발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역과 증상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짓기를 어렵지만 인터넷 접속시의 주요 접속 영역이 병리적 증상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만한 부분이며, 인터넷 접속이 증상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의 개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된다. 접속 시간과 성별 그리고 구체적인 증상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분석에서는, 접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별에 따라서 증가하는 증상, 성별과 무관하게 접속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증상, 성별에 따라 접속 시간 증가에 따른 증상의 심화 정도가 다른 증상, 성별에 따

라서도 그리고 접속시간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증상으로 증상 영역들이 나뉘어졌다. 첫 번째로, 접속시간과 무관하게 성별에 따라 증가하는 증상은 음란물 몰입 증상이었다. 음란물 몰입 증상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욱 심했다. 두 번째로, 성별과 무관하게 접속시간이 증가되면 증상도 심해지는 것은 학업 실패와 신체건강상의 문제였다. 세 번째로, 접속 시간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심화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역은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 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증상이었다. 즉,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병리적 증상은 대체로 여학생들이 처음에는 남학생들보다 낮은 정도이지만 접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상을 심화시키며, 증상 영역중에서도 특히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증상이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서도 접속 시간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증상은 자기통제력 상실, 대인관계 손상, 현실도피적 지향성 증상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음란물 몰입은 접속 시간과 무관한 증상이라는 점과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증상이 낮지만 접속 시간의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급격하게 증상하게 심화시키며, 특히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에 대해서 더욱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내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박적 이용 혹은 중독의 개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여학생들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될 수 있다.

Grable과 Roszkowski(2007)은 여성은 자신의

내인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Ko 등(2008)의 연구를 보면 여자청소년들은 감정적 내인력과 좌절 내인력이 낮았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평가된 여자청소년들은 감정적 불편을 더욱 못참았다. 또한, 그 기제가 병리적 인터넷 이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병리적 중독에 관해서 보면 여성은 탈출의 한 방법으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과 더불어 우울해지기가 더욱 쉽지만 치료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APA, 1994). 이 연구에서 접속 영역과 관련된 여학생의 반응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인터넷 접속시 메신저만을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던 점과 여학생은 내성/과몰입적 접속,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몰입 증상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중독으로 알려진 여성들은 감정적 불편을 못참았다는 점(Ko, 2008)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학생의 병리적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접속 동기와 관련된 분석결과와 더불어 보다 통합적으로 보자면, 여학생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문제해결적 측면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사회적 측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점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정적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면서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내성/과몰입적 접속에서 남학생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표면적으로는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남학생보다 더욱 심한 정도로 인터넷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학생의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객관적 증상 수치가 남학생보다 더 낮은 점에 대해서 안도를 하기보다는 그 잠재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

두 가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개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몇 가지 함의를 남겼다. 첫째는, 향후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문제는 여가 시간 관리 혹은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병행해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이다. 압도적인 비율로 남녀 모두 ‘심심해서’를 주요 접속 동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공부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은 인터넷 환경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병리적 증상의 증가에 관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간은 많이 나는데 마땅히 무엇을 할지 몰라서 게임을 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게임 이외의 적당한 놀이문화가 없다(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휴대용 무선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이제는 원하기만 하면 이동중에도 쉬지않고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도록 유인하고 있는 만큼, 심심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인터넷이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접속 시간도 더불어 증가하고, 접속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상의 증가도 잇따른다면, 접속 시간의 증가가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찾을 필요는 더욱 증가한다는 점이다. Jackson 등(2006)의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HomeNetToo를 많이 이용할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HomeNerToo의 경우 디지털 디바이드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문화적 박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번째 달은 이메일 이용에 대한 것부터 가르치며 점차적으로 여러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학업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관련하여 HomeNerToo 프로젝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아동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접했고 참여 아동들의 모든 인터넷 활동들이 모니터링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 활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정보검색 중심의 인터넷 접속 활동은 증상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의 감소와 연결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검색 중심의 인터넷 접속 활동을 체계화하고 인터넷 접속시의 상황을 부모나 교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자기 보고형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에 왜곡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자료는 횡단연구에서 얻어진 것인 만큼 인과 관계에 대한 추정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세 번째,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시점과 현 시점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접속시의 동시다발적 행동에 대한 실제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종단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교현, 최훈석 (2008). 인터넷 게임중독: 자기 조절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51-569.
- 김은정 (2005).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59-377.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인터넷 중독 증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제37회 청소년 문제연구 세미나 자료집, 19-6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1부-증상척도(MSPIUA-S). 청소년 상담 연구, 12(2),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2부-원인척도(MPIUA-C). 청소년 상담 연구, 13(1).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 수준에 따른 친구 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75-488.
- 이성식, 전신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유형별 설명요인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4), 151-171.
- 이현자 (2004).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5(10), 63-77.

- 이현주 (2006).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하루 인터넷 게임 시간 및 인터넷 게임중독. *교육방법연구*, 18(2), 119-137.
- 장재홍, 신호정 (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651-672.
- 조영란, 이화자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7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발표. <http://isis.nida.or.kr/board/index.jsp?pageId=060200&bbsId=3&itemId=773&pageIndex=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한국인터넷백서. <http://isis.nida.or.kr/ebook/2008/ebook.jsp>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http://isis.nid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sId=7&itemId=723>
-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Eijnden, R. J. J. M. v., Meerkerk, G-J., Vermulst, A. A., Spijkerman, R. & Engels, R. C. M. E. (2008). Online communication, compulsive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655-665.
- Grable, J. E. & Roszkowski, M. J. (2007). Self-assessments of risk tolerance by women and men. *Psychological Reports. Vol* 100(3), 795-802.
- Jackson, L. A., Eye, A. V., Biocca, F. A., Barbatsis, G., Fitzgerald, H. E. & Zhao, Y. (2003). Personality, cognitive sty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us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2(2), 79-90.
- Jackson, L. A., Eye, A. V., Biocca, F. A., Barbatsis, G., Zhao, Y. & Fitzgerald, H. E. (2006). Does Home Internet us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low-incom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29-435.
- Ko, C-H., Yen, J-Y., Yen, C-F., Chen, C-S. & Wang, S-Y.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belief of frustration intolerance: The gender difference. *CyberPsychology & Behavior*. 11(3), Jun 2008, 273-278.
- Turkle, Sherry,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Whitlock, J., Powers, J. L. & Eckenrode, J. (2006). The virtual cutting edge: the Internet and adolescent self-injury.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07-417.

1 차원고집수 : 2009. 2. 17.  
심사통과집수 : 2009. 3. 6.  
최종원고집수 : 2009. 3. 24.

## **Usage Patterns of Internet, gender difference and the pathological symptoms**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et usage patterns of adolesc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usage patterns and their pathological symptoms. Using data related to 657 adolesc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of login, the duration of login, the motive for accessing the Internet, and the major login area. It was observed that boys were more exposed to the Internet than girls and that boys used the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girls did. Both girls and boys reported boredom (i.e., having “nothing to do”) as the primary reason for accessing the Internet. Boys mostly played games, whereas girls mainly listened to music or watched films on the Internet. The main effect of the duration of the login and the gender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duration of the login and the gender were significant. Thus, boys were correlated with more severe pathological symptoms, and the longer the login, the more severe was the symptom. The findings also demonstrated that boys exhibited more severe symptoms than girls did but that the symptoms aggravated faster in girls than in boys in the intolerance, the orientation toward the virtual relationship, and the compulsive preoccupation toward the virtual space .

*Key words* : pathological symptom, Internet, exposure, motive, contents